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양인모&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2024 아침을 여는 클래식

[3월, 바리톤 김기훈]

[4월, 피아니스트 박종해]

뮤지컬 [드라큘라]

최수진 [Alone]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스프링페스티벌 2024. 봄의 제전, 봄의 대전

[바흐 아벤트]

[2024 대전연극제 대상작]

콘서트 오페라 [라 보엠]

대전예술의전당
프로그램 가이드
3-4월호

Daejeon Arts Center
Program Guide
March-April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여제

#그레미상과 폴라상의 수상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말이 필요 없는 바이올린의 전설,
세계 최고의 감동적인 연주를 선사하다

황홀한 연주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여제 소피 무터가 5년 만에 돌아왔다. 50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4회의 그레미상과 2019년 폴라상을 수상한 그녀의 연주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격정적이고 폭발적이며 그녀만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더해져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런 그녀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오랜 파트너 피아니스트 램버트 오키스. 그녀의 카리스마를 부드럽게 받아주는 그의 연주는 마치 물결이 반짝이는 깊은 호수 같다.

이들이 함께 보여줄 무대에서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모차르트와 슈베르트, 레스피기 등 다양한 바이올린 레퍼토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선정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그녀만이 전해줄 수 있는 연주를 만나보자.



2024. 3. 3. (일) 17:00

<u>장소</u>	아트홀
<u>티켓</u>	R석 15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u>연령</u>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u>소요시간</u>	약 90분 (인터미션 포함)

양인모&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그들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봄이 다가오듯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고품격 감동의 현악 하모니

무심한 듯 특 내뻗지만 따뜻하다. 긴말하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우릴 위로해 준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그의 연주가 이리하다. 스무 살의 나이에 대한민국 최초로 파가니니 국제콩쿠르를 석권하며 한국을 빛냈다.

이런 그와 함께하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는 1956년 루체른 음대의 볼프강 슈나이더한 교수가 뛰어난 제자들을 선별해 창단한 팀이다. 고전에서 현대 음악까지 폭넓은 스펙트럼 보여주고 현재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도즈가 예술감독을 맡아 스위스의 대표적인 악단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세계 최고의 현악 사운드를 추구하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와 흠잡을 데 없는 기교와 따뜻한 음색의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만남! 뮤지컬 한 편을 보듯 때론 서정적인 영화를 보는듯한 이들의 감동적인 무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



INMO YANG & FESTIVAL STRINGS LUCERNE
양인모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2024. 3. 10. (일) 17:00

<u>장소</u>	아트홀
<u>티켓</u>	R석 15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u>연령</u>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u>소요시간</u>	약 100분 (인터미션 15분 포함)

2024 아침을 여는 클래식

3월 바리톤 김기훈

갓 구워져 바구니에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행복해진다. 바리톤 김기훈을 보면 그렇다. 폭풍과도 같은 엄청난 음량과 동시에 그만의 섬세한 표현이 풍성함과 안정감을 들게 한다.

영국 BBC 카디프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으며 세계적 성악가 심사위원 2명이 그의 노래를 듣고 눈물 흘렸다.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경이로운, 스키타르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가수, 이미 월드클래스'라는 단어가 오간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끊임없는 불만족에서 좋은 예술이 탄생한다. 그렇기에 나는 항상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노력해 간다.' 이미 완성되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만의 목소리로 2024년 아침을 여는 클래식의 특별한 처음을 맞이해 보자.

2024. 3. 12. (화) 11:00

장소 앙상블홀
티켓 전석 1만원
연령 초등학생 이상
소요시간 약 80분(인터미션 없음)

4월 피아니스트 박종해

그의 연주는 머나먼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의 이야기 같다. 때로는 높은 산을 오르기도 하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하기도 한다. 바람이 부는 평화로운 들판을 걸기도 하고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기도 하다.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이 담긴 그 재미난 이야기를 한순간도 놓치기 싫어서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된다. 이렇듯 강한 내면과 진심 어린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 박종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2위와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및 최연소 연주자 특별상을 받은 일찍이 차세대 한국 대표 피아니스트로 주목받은 그는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피아노로 말하는 피아니스트 박종해. 싱그러운 아침 그가 들려주는 '슈만'의 아름다운 음악 이야기에 두 귀를 쫓겨 기울여보자.

2024. 4. 9. (화) 11:00

장소 앙상블홀
티켓 전석 1만원
연령 초등학생 이상
소요시간 약 80분(인터미션 없음)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계 거목들

#세계 최초 고령의 고고와 디디 역대급 케미 선사

#8분 기량의 방대한 독백

#심오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하다

연극계 살아있는 전설들이 선보이는 고전 연극의 정수

'고도를 기다리며'는 아일랜드 출신의 196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사뮈엘 베케트의 대표작으로 에스트라곤(고고)과 블라디미르(디디)라는 두 방랑자가 실체가 없는 인물 '고도(Godot)'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내용의 희비극이다. 인간의 삶을 '기다림'으로 정의하고 그 끝없는 기다림 속에 나타난 인간존재의 부조리성을 보여주는 연극이다.

한국에서는 극단 산울림의 임영웅 연출을 통해 1969년 초연되어 50년 동안 약 1,500회 공연, 22만 관객의 사랑을 받아 온 베스트셀러 연극이다. 이처럼 연극 대가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한국 연극계 살아있는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여 큰 화제를 모았다. 조금 전의 일도 기억 못 하는 고고(신구), 늘 고도를 기다리는 디디(박근형), 노예의 상징 럭키(박정자), 권력자의 상징 포조(김학철), 고도의 심부름꾼 소년(김리안)이 출연하며 연출에는 오경택이 맡았다.

이들이 나누는 무의미한 대사들은 어느덧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로 다가오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고도를 나도 모르게 기다리게 되는 한국 공연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 고전의 깊이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고도를 기다리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2024. 4. 13. (토) ~ 4. 14. (일)
15:00

장소 앙상블홀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연령 중학생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150분(인터미션 20분 포함)

뮤지컬 [드라큘라]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입맞춤

#400년의 세월 동안 한 여인만을 사랑한 드라큘라 백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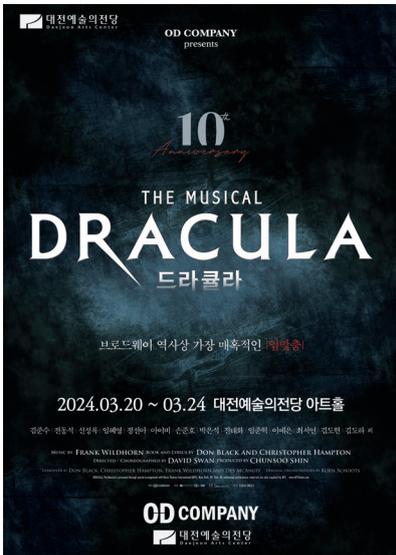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 이클립의 로맨스

운명을 바꿔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는 브램 스토커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400년의 세월 동안 한 여인만을 사랑한 드라큘라 백작의 이야기다. 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 영원의 삶을 선택한 드라큘라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여인 '미나'. 죽음보다 더 고귀한 세기의 러브스토리가 입체적이고도 웅장한 무대연출로 펼쳐진다.

눈을 땔 수 없는 환상적인 4중 회전 무대와 플라잉 기술, 19세기 유럽을 옮겨 놓은 듯한 고딕풍 디자인, 몽환적인 느낌의 특수효과와 강렬한 색채 조명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한다. 또한 천재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아름답고 애절한 넘버는 음악 그 자체로 스토리와 캐릭터가 되어 더욱 감동을 더 한다.

치명적이고 신비로운 운명적 이클립의 로맨스, 특히 드라큘라와 미나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아름다운 듀엣곡은 이 봄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한 번쯤 꼭 들어보길 바란다.



2024. 3. 20. (수) ~ 3. 24. (일)

(수) (목) 19:30

(금) 14:30, 19:30

(토) 14:00, 19:00

(일) 14:00

장소	아트홀
티켓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연령	중학생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약 165분(인터미션 20분 포함)

최수진 [Alone]

#보이지 않는 감정들

#인공지능(AI)과 소통

#감정의 시각화

#기술과 예술의 협력

현대무용과 인공지능이 만난 다채로운 무대

인간에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고독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상실감, 외로움, 고독함, 무력감, 우울감, 화남에 갇히면 혼자 헤쳐 나가기 어렵다. 때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런 나에게 그녀가 그녀만의 몸짓과 형상으로 위로를 전달한다. 때로는 몇 마디 말보다 한 차례의 다독임이 따스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감정적인 예술과 인공지능(AI)이 만나 예술적 소통이 가능한가에서 기획이 시작됐다. 안무가의 감정을 AI와 이미지 프로젝션을 통해 관객에게 나눈다. 감정과 관련해 chat GPT가 출력한 텍스트와 음악. 여기에 관객을 향해 양쪽으로 배치한 런웨이 형태의 무대는 보는 이로 하여금 공연에 더 몰입하게 한다.

AI라는 냉철함과 딱딱하고도 차가움에 사람의 감정과 따스한 위로가 공존하는 무대. 마치 미래 예술을 보듯한 그들만의 새로운 현대무용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2024. 3. 30. (토)

15:00, 19:00

장소	앙상블홀
티켓	전석 3만원
연령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60분(인터미션 없음)

봄의 제전, 봄의 대전

2024 스프링페스티벌

#봄의 제전, 봄의 대전

#지역예술인들의 공연

지역예술인들의 공연 축제, 대전예술의전당 스프링페스티벌이 올해는 '봄의 제전, 봄의 대전'이라는 주제로 관객을 찾는다. 국내 우수 제작진과 지역예술인의 협업으로 연극, 음악, 오페라 등 3개 장르의 작품으로 무대를 꾸민다.

바흐 아벤트

#음악의 아버지 '바흐'

#바흐와 바흐의 아들들

#영혼을 채우는 바흐의 음악

봄을 맞아 대지에 새싹이 움트듯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를 느끼게 해줄 이번 스프링페스티벌 아벤트 시리즈의 주제는 '바흐와 바흐의 아들들'이다.

아이들에게는 다정한 아버지, 부인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었던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 바흐. 우리에게 '음악의 아버지'로 알려진 그의 음악은 시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한다. 기쁨에서 슬픔, 경이에서 경건함까지 깊고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사색과 자기 성찰,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깊이를 느끼게 하는 바흐의 음악.

피아니스트 안중도가 음악감독을 맡았고 선발된 지역예술가들과 함께 준비하여 공연을 선보인다. 젊은 예술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바흐만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음악제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2024. 4. 19. (금) ~ 4. 21. (일)

(금) 19:30

(토) 17:00

(일) 15:00, 19:00

장소 양상블홀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연령 초등학생 이상
소요시간 약 90분(작품별 상이)

2024 대전연극제 대상작

#대전연극제 대상

#극단 흥시 [사문난적]

#극단 라일락 [백파]

#국제연극연구소 H.U.E [도장 찍으세요]

올해 스프링페스티벌에는 2024 대전연극제 대상작이 무대에 오른다. 연극제 출품작은 극단 흥시 [사문난적], 극단 라일락 [백파], 국제연극연구소 H.U.E [도장 찍으세요]이다.

[사문난적]은 조선 후기 우리지역 대표 학자 백호 윤희 선생의 업적을 다룬 작품, [백파]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악의 폭력성을 그린 작품, [도장 찍으세요]는 어느 마을의 재개발 문제를 통해 물질과 편리에 물들어 잔인하게 변해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세 개 작품 모두 흥미로운 소재로 제작되었다.

2월 29일까지 열리는 경연무대를 통해 3월 대상작이 선정된다. 어떤 작품을 스프링 페스티벌에서 만나게 될지 기대해도 좋겠다. 향후 스프링페스티벌에서는 대전연극협회의 긴밀한 협업으로 매년 열리는 대전연극제 대상작을 초청하여 대전예술의전당의 기획력과 기술력을 더해 더욱더 완성도 높은 무대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연극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록하며 꾸준히 거울을 닦는 연극인들에게 공연관람으로 지지와 감사함을 전해보자.

2024. 4. 26. (금) 19:30

4. 27. (토) 15:00

장소 양상블홀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콘서트 오페라 [라 보엠]

#가난하지만

#자유와 낭만이 있듯이

#콘서트 오페라지만

#있을 건 다 있어

라 보엠은 프랑스 작가 앙리 무르제의 소설 [보헤미안 삶의 정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예술과 가난한 삶 속에서 온갖 기쁨과 고통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오페라이다. 파리의 낡은 아파트에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살고 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시인 로돌프는 촛불을 빌리러 온 이웃집 여자 미미와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콘서트 오페라인 만큼 무대 연출이나 배우의 움직임이 최소화하지만 대신 오케스트라와 성악가가 연주하는 음악에 중점을 뒀다. 무대세트와 영상을 적절히 활용하였으며 주역 출연진은 작품의 성격에 맞게 39세 이하 청년으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었다. 더불어 지역의 젊은 연출가 한상호와 중견 지휘자 이운복, 연주에는 안디무지크 필하모니아가 담당한다. 설레는 봄날, 자유와 낭만을 온몸으로 전해줄 오페라 [라 보엠]을 만나보자.

2024. 4. 26. (금) 19:30

장소 아트홀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인스타그램
INSTAGRAM



카카오톡 채널
KAKAO



회원가입
JOIN



아트너
ARTNER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그래픽용지입니다.
(무림제지 네오스타백상 120g)



대전예술의전당 프로그램 가이드 3-4월호



웹사이트 www.daejeon.go.kr/djac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

문의전화 042-270-8333

기획·편집 대전예술의전당 홍보마케팅팀

디자인·인쇄 노네임프레스 (NO-NAME)PRESS